



보도자료

보도자료

제 목	관세청, 경제위기 극복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			등록일	2009-06-03
작성자	김태영 사무관	담당부서	심사정책과	조회수	81

관세청, 경제위기 극복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

- 3단계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 시행 -

▶ 관세청(청장 허용석)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1.5조원 규모의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.

▶ 이는 최근 국내경기의 하강속도가 완만해지고 자금조달시장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

◎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차원에서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
▶ 관세청은 금융시장 불안정성 및 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

◎ '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'을 마련하여 지난해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4조 4천억원 규모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였으며

◎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 등에 대해 1,574억원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다.

※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'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'에 따른 지원업체 중 악성채납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분석

▶ 관세청은 국내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조달이 여전히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추가 대책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,

◎ 관세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5월말 만료되는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,

◎ 5월말 이전에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로 하였다.

▶ 이번 대책은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,

◎ KIKO 피해업체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,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및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하였다.

※ 최근 환율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, 전년동기대비(1~5월) 과세환율이 40.7% 상승하여 세금부담이 높아졌음을 감안, 신용담보한도를 과세환율 상승분만큼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('09.5.4)

▶ 아울러, 관세청은 기업심사(세무조사)를 경제위기 해소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보하는 한편,

◎ 기업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세액추징보다는 원산지 위반, 불법 먹거리, 환경위해물품의 수입 등 통관적법성 심사에 치중한다고 밝혔다.

▶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경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.

첨부파일

파일받기안내 >

한줄 답변을 할려면 실명인증을 하십시오. ● 실명인증바로가기
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다음글	RFID기술 활용으로 항공수입화물 통관 ...	2009-06-03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다음글	국내기업 짝퉁물품 피해방지에 세관이 나선...	2009-06-03
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재글	관세청, 경제위기 극복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	2009-06-03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이전글	한국세관, 그 130년을 추모하다	2009-06-03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이전글	녹색교통수단의 선봉, 자전거 수입 증가	2009-06-01

글목록 >



만족도조사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
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 ★

의견입력

창닫기 >